투데이 칼럼

목소리가 공신력을 갖는다

김양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현대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호감 가고 전문성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갖고 싶어 하고 목소리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목소리는 수용자의 정보, 인지, 감정 등의 반응에 영향을 주며 또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에게 전달해 주는 한 요소이다. 즉, 목소리에 어떠한 높이, 크기, 길이, 빠르기, 쉬기, 힘주기 등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달라진다.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화자의 첫인상을 구성하기 때문이고 목소리는 커뮤니케이션 주제들 간의 초기 관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목소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상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동시에 개인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라비언(Mehrabian)은 목소리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 사람의 인상이나 이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화를 통해 내용 전달을 할 때 목소리가 38%, 표정이 35%, 태도가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말하는 내용의 단어는 겨우 7%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목소리가 의사소통에서 3분의 1이상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좋으면 설득력과 신뢰성이 높은데, 메시지 전달 할 때 내용보다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밥샘 프리젠테이션 준비, 진땀나는 면접시험, 이성과의 데이트 스피치, 협상준비, 세일스피치 등 중요한 스피치를 할 때 잔뜩 긴장되고 떨리는 목소리 탓에 노력하여 준비한 내용을 망쳐버린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목소리가 나빠지는 두 가지 원인은 크게 육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로 나눠 볼 수 있다. 대개 잘못된 습관이나 심리적 원인들로 인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긍정의 마음가짐과 반복된 연습만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고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살아있는 목소리를 위한 발성훈련을 살펴보면

첫째, 자세교정인데 목소리는 단지 성대에서만 나오는 음성만이 아니기 때문에 온몸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

둘째, 호흡훈련인데 발성의 99%는 호흡법이다. 호흡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호흡을 지향하고 시원스럽게 막힘없이 나가야 한다.

셋째, 발성훈련인데 아름다운 발성은 모두의 바람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메시지, 감정을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사이 보이스코칭이 있는데 각자 가진 목소리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좋은 목소리는 속도, 발음, 억양, 음량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는 건강한 자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소리를 갖어야 한다.

학자들에 의하면 느린 목소리는 진실성이 없고 설득적이지 않으며, 수동적이라고 말한다. 속도가 빠르면 화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다고 말하고, 말소리의 높이가 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낳는다. 말을 조금 빨리 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지성, 지식, 외향성, 객관성, 권위차원에서 청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한편, 화자의 전달력과 신뢰도 평가와의 관계를 연구한 루카스(Lucas)는 전달력이 뛰어날수록 화자의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다고 했다. 우리는 발성측면에서 듣기 좋고 친근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발음측면에서는 쉽고 정확하게 말하고 목소리를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것은 설득력을 높이는 스피치를 할 수 있다.

스피치에서 목소리의 구성요소들의 화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화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호감이나 공신력으로 변한다. 공신력은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산이다.

독자제언

교통사고 사망자 38%는 보행자사고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은 외출 시 잠재적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데 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되며 자동차 등과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로, 이 수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이 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명)의 3배가 넘는 수치이며 특히 인구 10만명 당 노인 보행자 사망은 15.5명으로 OECD 평균(3.2명)의 5배에 육박한다고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보행사망사고 중 고령자의 비율이 절반에 해당되는 50%정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행사망자 중 약 20%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안전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로 정비,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대, 주택가 이면도로 속도제한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보행자 스스로 보행 중 핸드폰을 보는 행동을 삼가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안전 보행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도 인적이 드문 지방부도로를 지나거나, 시인성이 떨어지는 야간에 운행할 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더욱 더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 될 것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목격자 역할, 블랙박스 관리 필요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경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야 하기에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자동차 기기로 인식 및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정작 필요할 때 영상이 안 나오거나 녹화가 안 되었다면 난감할 것이다.

구입자들은 대개 장착만 해 놓고 '녹화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블랙박스를 방치해 두는데,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나가보면 차량의 소유자는 당연히 영상이 녹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영상을 재생해 보면 과거 영상만 있거나, 녹화가 안 되어 있거나 재생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녹화가 되어도 시간이나 날짜가 전혀 안 맞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블랙박스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

자동적으로 포맷이 되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메모리카드는 1개월에 2회마다 15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포맷해야 한다.

블랙박스에 주로 쓰는 SD 메모리 카드는 수명이 한정된 제품이다. 제품 사용 중 지속적으로 읽고 쓰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용 수명이 짧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포맷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월 1회 블랙박스 영상 녹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에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설치만 해놓고 오랜 기간 동안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품 오작동 등의 이유로 정작 중요한 사고 장면은 녹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기적으로 영상이 잘 녹화되는지 체크하는 게 좋다.

이진제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사 설

고용 현실, 이래서야 말이 되나

전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업들은 청년 고용의 열기를 뜨겁게 해야겠다. 도내의 현실을 보면 그동안 고용 열기가 미지근했다. 왜 그랬을까.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도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아니 그보다는 아예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는 짐작이다. 청년 취업 성적표가 초라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었으니 말이다. 고용 열기를 뜨겁게 해야 하는데 그게 말뿐이었던 것이다.

여기 다시 지적하거니와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기사를 쓸 때만 협조하는 척 할 게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의 현실에 주목해야겠다.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역 인재 채용 문제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이다. 청년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농촌진흥청의 고용 현실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기사를 읽고 난 느낌이 참담하다. 농촌진흥청이 전북 일자리 창출의 선두주자처럼 보도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속내는 그게 아니었으니 말이다. 전체 직원 5,267명 중에서 정규직은 33.6% 라니 말이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세 명 중 두 명꼴로 비정규직이라는 계산이 된다.그런 까닭에 그동안 뭘 모른채 속고만 있었구나라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 3,493명 중에서 무기 계약직은 14.7%에 불과한 514 명이고 1년 미만의 계약직이 57.6%에 해당하는 2,012명이라니 말이다.

전북도는 계약직 일자리마저 언제 잘릴지 몰라 고민해야 하는 이들의 정서를 헤아려야겠다. 그러므로 청년 고용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공채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은 전북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청년 고용 열기를 식혀둔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다들 청년고용 열기를 뜨겁게 해야만 되겠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으로 위상 높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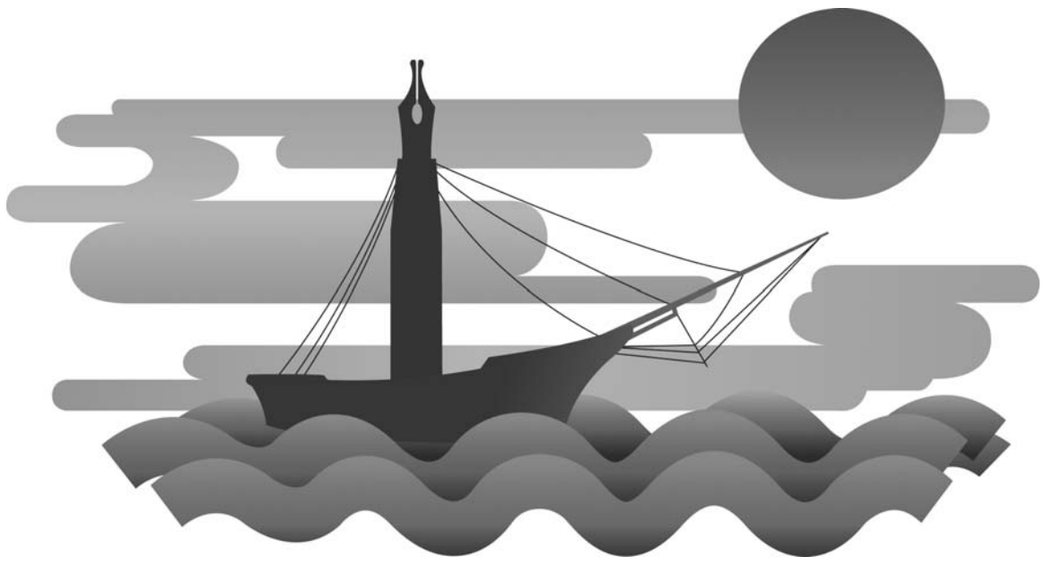
전북도는 지역 발전으로 그 위상을 살려야겠다. 내년이면 전주 지역과 나주 지역을 합쳐서 전라도라 칭한지 1000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제주도를 포함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중심도시는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였다. 그런데 그 유구한 자존감은 이제 무색해졌다. 오늘날 전주시는 광주 광역시의 절반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어야겠다. 송하진 도지사가 저번에 천명한 그대로 지역의 발전을 통해 '전북의 자존시대'를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으로 그 위상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외에는 밝은 소식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나날이 들려오는 것은 안 좋은 소식 뿐이었으니 말이다.

지난 봄 여름을 분노로 뜨겁게 달구었던 군산조선소 폐쇄가 그렇고, 서남대 폐교 수순밟기가 바로 그랬다. 그런데 저번에는 넥솔론이 파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소식이 들렸고 한국 GM이 철수하리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이쯤 되면 전북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다.

지역 발전으로 그 위상을 살리려면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이를 악물어야 한다. '전북자존시대'를 말하는 것과는 반비례로 우리 전북의 위상이 갈수록 영락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은 정말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거듭되는 악재를 떨쳐버릴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독자 권역을 구축하고 발전 프로젝트를 계속 다듬어야겠다. 그리고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중심 주제로 삼고 예산 증액의 명분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도가 청구한 내년 예산이 옳게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다.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을 위해 생각이 많을 것이기에 전북도는 더 많은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 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열린다는데 전북도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탄소산업의 중심지가 전북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역 경제가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